06. 고속도로 주행요령

주행 전 준비와 자세

1. 무리 없는 운전 계획의 수립과 교통정보 확인

사전에 도로망·지도 등을 조사하여 운전 경로의 선정, 출발 및 도착 시간, 휴식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는 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심신 상태를 안정시키고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일기예보를 청취하거나 교통관제센터에 문의하여 도로나 교통상황을 확인해 봅니다.

2. 자동차의 사전 점검

▷ 연료의 양은 충분한가, 냉각 장치에서 물이 새는가, 냉각수의 양은 충분한가
▷ 라디에이터의 덮개는 확실한가, 엔진 오일의 양은 적당한가
▷ 팬벨트의 장력은 적당한가, 손상된 곳은 없는가
▷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가(약 10~20%정도 높임), 타이어의 홈 깊이는 충분한가

3. 필요한 기구 및 부품의 지참

▷ 예비용 타이어, 수리 공구, 퓨즈, 팬벨트
▷ 소화기, 손전등, 고장 표시 삼각대, 기타 구급 약품 및 지도 등

4. 화물의 적재 상태 확인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많으므로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미리 화물의 적재 상태를 점검하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짐을 다시 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주행시 주의사항

1. 주행차로 진입시

▷ 가속차로에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고속도로 진입신호를 하면서 서서히 가속합니다.

▷ 고속도로 출입구로부터 주행차로로 들어가고자 할 때 주행차로를 따라 주행해 오는 다른 차와의 거리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가속합니 다. 이 때 저속으로 진입하게 되면 주행 차로를 주행 중인 차가 추돌하거나 또는 급 브레이크, 급핸들을 조작하게 되어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왼쪽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면서 안전 확인후, 60~80km/h정도까지 가속하여 신속히 주행차로로로 진입합니다.

2. 주행차로 주행시

▷ 최고·최저 속도의 준수

고속도로의 주행차로에 들어가게 되면 노련한 운전자도 처음에는 쉽사리 고속 상태에 익숙해지지 않아 흔히 감속 상태로 주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30분 가량 지나게 되면 사람과 차가 고속 상태에 익숙해져 엔진이나 엑셀에 민감하게 되어 이번에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속도에 유의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한편, 최고 속도나 최저 속도 등을 꼭 지켜야 합니다.

차 로 별	최고속도	최저속도
편도 2차로 이상	100km/h 〔1.5톤 초과의 화물·특수차·건설기계 : 80km/h〕	40km/h
편도 1차로	80km/h	50km/h
중 부 선	110km/h 〔 1.5톤 초과의 화물·특수차·건설기계 : 80km/h〕	60km/h

주행 후 주의사항

▷ 미리 목적지의 방향과 출구를 예고하는 안내 표지에 주의하면서 주행합니다.

▷ 출구에 가까워졌을 때에는 미리 출구와 접촉되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때 속도계를 확인하여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 속도계에 의해 속도를 확인하고 출구 접촉차로로 진입하면 속도를 낮추어 신속히 출구 접촉차로에 들어가 우측에 신호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나갔을 때에는 바로 일반도로에 알맞은 운전 방법을 취해야 하며, 특히 고속운전에 익숙해진 후에는 과속운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속 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램프웨이 : 경사가 다른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차량고장시 조치 요령

1. 갓길의 이용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2. 고장차량 표지의 설치

▷ 주간에는 주차등을 켜고 고장차량의 100m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를 설 치하고 야간에는 고장차량의 200m이상의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와 함께 사 방 500m지점에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 여 다른 차에게 고장차량이라는 신호를 합니다.

▷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고, 특히 차체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하며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 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 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